

‘장흥 찹쌀’ 이마트 입점, 전국 유통망 확보

용두농협 브랜드 찹쌀 ‘가치지은’ 143개 매장 납품 정중순 군수 “고품질 찹쌀 생산·판로확대에 노력”

장흥찹쌀이 국내 최대 유통 체널인 이마트에 입점돼 전국 판매망을 확보했다.

장흥군은 용두농협에서 생산한 장흥찹쌀 420톤을 지난 2일 전국 이마트 143개 모든 매장에 납품했다고 밝혔다.

용두농협은 올해 장흥군과 협력해 본격적인 찹쌀 브랜드 ‘가치지은’을 새롭게 개발했다.

이후 이마트 측과 꾸준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3kg 단위 소포장 찹쌀 상품 14만포를 이마트 전국 매장에 납품하는 성과를 거뒀다.

용두농협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매년 이마트 납품을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장흥군 찹쌀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스토리텔링을 전문 컨설팅업체와 진행하기로 했다.

품질 균일화를 위해서는 계약재배 농가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장흥군 용두농협은 그동안 장동면과 장평면 지역 400여농가, 755ha에 계약 재배를 통해 매입한 찹벼 중 75%를 원료곡인 조곡 상태로 판매하는 등 유통망 확대와 찹쌀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



다. 이 같은 어려움은 새로운 찹쌀 브랜드 ‘가치지은’ 개발과, 이마트 납품으로 단번에 해결하게 됐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자연 재해와 병충해로 어느 해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

낸 우리 농업인과 지역에 대비 같은 소식”이라며 “앞으로 고품질 장흥찹쌀 생산과 판로 확대에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해남군, 산림청 조림지 평가서 우수기관 선정

해남군이 산림청에서 주관한 2020년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 선정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우수조림지 평가는 조림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조성된 3ha이상 면적의 활엽수 인공조림지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서류심사와 현장 평가를 실시했다.

해남군은 마산면 송석리 산35번지 일원에 목백합 조림지 13.79ha를 조성, 숲의 다양한 기능을 살리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조림지 선정으로 해남군은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금 3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한편 해남군은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 2020년도 국·도비 등 22억9,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해 총 160ha의 대해 조림사업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불량림 대체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큰나무 조림 30ha(1만500주), 벌채지에 대한 경제수 조림 43ha(2만9,000주), 산림재해예방조림 및 큰나무공익조림 27ha(4만500주), 황칠특화조림 60ha(7만8,000주) 등 사업을 완료했다.

기동취재본부

엄홍길 대장도 반한 ‘보길 윤선도 어부사시사 명상길’

총길이 5.16km 예송리~보옥리 마을 연결...아름다운 다도해 풍광 한눈에

완도군은 2020 청정완도 가을 섬여행(10. 23 ~ 11. 1) 기간 진행된 온택트 프로그램 ‘엄홍길과 함께 걷는 어부사시사 명상길 트레킹’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윤선도 어부사시사 명상길은 고산 윤선도 선생이 거닐었던 부용동 원림의 옛길을 복원하여 관광객들이 고산의 발자취를 따라 거닐 수 있고, 쾌적한 탐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됐다.

총 길이 5.16km로 예송리와 보옥리 마을을 연결하고 있으며, 2019년에 정식 개통되었다.

윤선도 어부사시사 명상길은 다양한 매력에 있다.

시원하게 탁 트이고 아름다운 다도해 풍광을 한눈에 담을 수 있으며 적당한 오르막과 내리막으로 지루함을 느낄 새가 없다. 기암괴석 사이로 가을 절경을 즐기고 환상적인 나무터널을 지나다 보면 코로나19로 지친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다.

또한 숲길을 거닐다보면 소나무와 동백나무 군락지를 마주하는데 피톤치드가 풍부해 지나기만 해도 정서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

명상길 끝에 마주하는 공룡알 해변은 공룡 알처럼 큰 자갈이 모여 있다 하여 이름 붙여진 곳으로 해변을 가득 채운 큼직한 자갈은 모양도 색깔도 각각각색으로 흔히 볼 수 없는 이색적인 풍경이다.

엄홍길 대장은 “어부사시사 명상길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해안 길을 걸을 수 있고, 무엇보다 고산의 발자취를 느껴볼 수 있는 역사 자원과 동백나무 숲길 등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코스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사랑받는 명상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홍길과 함께 걷는 어부사시사 명상길 트레킹’ 영상은 유튜브 ‘희망안도채널’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편 보길 윤선도 어부사시사 명상길을 찾아가는 방법(자가용 기준)은 완도 화흥포항에서 노화 동천항을 향하는 여객선에 승선하여 노화 동천항, 보길대교를 거쳐 예송리를 찾으면 된다.

여객선은 하루 11회 운행되고, 대중교통 이용객은 노화 동천항에 내려 버스를 타면 된다.

완도=김광수 기자

‘국내 최초·최고’ 강진 사당리 청자요지 오는 10일 강진고려청자박물관서 심포지엄 개최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은 국내 최초로 발견된 중국식 만두요와 청자기를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강진 사당리 청자요지의 최근 발굴성과 연구’라는 주제로 오는 10일 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린다.

강진군은 2019년부터 1~4차에 걸친 강진 사당리 ‘가’구역의 발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작년 하반기에 국내에서 최초로 유일무이한 중국식의 원형기마, 즉 만두요(만두 형태와 유사한데서 비롯)가 완벽하게 발견됐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양이정’이 아닌 ‘태평정’에 사용된 청자기와 거의 온전한 형태로 발견되는 매우 중요한 성과가 있었다.

고려청자박물관에서는 이 두 가지의 중요한 발굴성과에 대한 학술 연구를 진행해 신속하게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이다. 주제발표는 만두요에 대한 것과 청자기와에 대한 두 가지로 기획됐다. 처음으로 유일하게 확인된 자료들이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다보니 발표와 토론시간을 넉넉하게 배정해 보다 다양한 의견교류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주제발표는 먼저 이희관 前 호림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강진 사당리요지 신발견 만두요와 그 수용 및 계통 문제’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며, 두 번째로는 조은정 고려청자박물관 학예연구사가 ‘고려 12세기 청자요지의 위상과 제작 배경’이라는 주제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각각의 발표에 대해 현재 강진 사당리 청자요지 발굴조사를 맡고 있는 권혁주 민족문화유산연구원장과 김윤정 고려대학교 교수가 지정토론을 맡았다.

현재 강진군에서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강진 사당리 청자요지의 발굴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중요한 발굴성과는 작년 하반기인 2차 조사에서 확인됐다. 두 가지 성과 외에도 고려시대 초기부터 후기를 아우르는 막대한 양의 청자 편과 대형 건물지도 확인됐다.

윤성일 고려청자박물관장은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발굴조사와 청자기와 특별전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에 개최하도록 했다”며, “앞으로 새롭게 발견되는 자료도 바로바로 공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진도군, 올해 공공비축미곡 4247톤 매입

진도군이 올해 공공비축미곡 4,247톤을 매입한다.

4일 진도군에 따르면 산물벼는 오는 11월 13일까지 매입하며, 건조벼는 읍·면별 지정된 장소에서 요일별로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벼 40kg)으로 환산한 가격이며, 매입 직후 3만원의 중간 정산금을 우선 지급하고 최종 정산금은 매입 가격 최종 확정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2018년부터 품종검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가가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출하품종의 일치 여부 DNA 검사도 실시한다.

매입 품종인 신동진, 새청무 품종을 제외한 다른 품종이 20%이상 혼입 시 해당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미곡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을별 시차제 출하 실시와 대상 농가들의 마스크 착용준수, 매입현장에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는 등 방역 계획에 따라 매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진도=조성용 기자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